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41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9년 3월 11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유성기업영동지회 한광호열사 3주기]

노조파괴 끝장낼 때까지 함께 싸운다!

열사 죽음 3년, 아직도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광호 열사를 보낸지 3년이 됐다. 2011년 시작된 노조파괴는 2016년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유성지회는 작년 10월 서울 본사 농성과 전면파업을 통해 노조파괴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지만, 투쟁은 2019년 새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성지회는 지금도 천안법원 앞에서 유시영 회장의 배임죄 등 책임을 물어 구속을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열사 3주기 추모주간, 투쟁으로 돌파한다!

지부와 지회는 3월 17일 한광호 열사의 기일에 맞춰 3주기 추모주간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11일(월) 아침 유성기업 영동공장 출근투쟁에 지부 운영위원 동지들이 함께 한다. 지금까지 9년간 이어진 투쟁에서도 지부 운영

위원들이 큰 힘이 됐지만, 앞으로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한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질 예정이다. 이어서 12일(화)에는 천안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성기업 노조파괴가 지금도 진행 중임을 알려낸다. 15일(금)에는 천안법원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연다. 추모문화제를 통해 여전히 노조파괴를 자행 중인 유시영 회장의 구속을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노조파괴 끝장낼 때까지 함께 한다!

유성기업은 아직도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미온적이다. 계속해서 같은 입장만 반복할 뿐,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 이번 열사 3주기 추모기간을 통해 유성기업을 사회적으로 압박하고 성실한 교섭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유성자본이 노조파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투쟁도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노조파괴가 끝장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콜텍 박영호 회장이 책임져라!

콜텍 박영호 회장이 3월 7일 교섭자리에 직접 나왔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박영호 회장은 그동안 사측이 주장했던 입장만 고수하면서 오히려 노조가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교섭에 나올 의미가 없다는 막말까지 했다. 박영호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온다는 소식에 언론사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날 교섭에는 KBS, YTN, 연합뉴스 등 방송카메라 3대, 사진카메라 10대 이상이 몰리는 등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다. 그러나 박영호 회장은 교섭을 더 파행으로 몰고 갔다.

콜텍지회가 1월 9일 본사 농성을 시작하고, 2월 19일부터 10일간 집중 항의행동을 통해 콜텍 기타를 취급하는 전국의 악기점에서 투쟁을 벌였다. 이 투쟁의 힘이 박영호 회장을 교섭자리까지 끌고 나왔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회는 더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며 10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후 투쟁을 논의했다. 12년이면 충분하다. 박영호 회장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 주요 일정 *

☐ 한광호열사 3주기 투쟁주간

3/11(월) 08시 운영위원 출투

3/12(화) 10시30분 기자회견

3/15(금) 15시 추모문화제

☐ 지부 운영위 수련회

3/11(월) ~ 12(화), 계룡산

☐ 근골유해요인조사 집체교육

3/13(수)~14(목), 마달피수련원

☐ 미조직 선전전

3/14(목) 06:30 청주 성모병원

11:30 대전 미건테크노월드